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대학생 진로소명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조절효과

김 소 희 박 지 영 손 영 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교 및 직업 장면에서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진로 적응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진로소명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소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의 가치지향이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를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이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 대학생 28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SPSS 25.0과 Amos 21.0을 사용하였으며,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소명을 예측하는지 확인한 후에, 부모양육태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소명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델로 분석하였고,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부와 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진로소명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반면 가설과 달리, 부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고,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진로소명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부와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부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은 자율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를 조절한 반면, 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은 조절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그리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진로소명, 부모양육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기초월가치지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손영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ysohn@yonsei.ac.kr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신지민, 이은경, 양난미, 2015).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속하며, 이 시기에는 자기정체감 확립, 삶의 목표 설정, 미래 설계를 생애적 발달과업으로 가진다(오현숙, 2008; Erikson, 1963; Super, 1957). 진로는 단순히 개인의 노동시간뿐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며(박미경, 김은하, 2016), 생활양식, 가치관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연문희, 강진령, 2002; Tolbert, 1980).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성, 진로적응성, 진로준비행동 등 대학생의 진로변인들이 활발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김은영, 2007; 안태용, 김신예, 2013; 신혜진, 2016; 이기학, 한종철, 1998; 이상희, 2012, Xu & Tracey, 2015), 이러한 요인들은 대학생의 진로만족, 삶 만족, 주관적 안녕감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안태용, 김신예, 2013; Lent & Brown, 2008).

최근 ‘진로소명(career calling)’이 진로변인들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김영석, 이상희, 2016; Douglass & Duffy, 2015; Hirschi & Herrmann, 2013; Praskova, Creed, & Hood, 2015). Praskova와 동료들(2015)은 진로소명을 “스스로 설정한, 개인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경력 목표”라고 정의한다. Praskova와 동료들(2015)에 따르면, 진로소명은 타인지향적 의미, 개인적 의미, 적극적 참여의 하위차원을 포함한다. 진로소명과 관련된 경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진로소명은 진로결정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박주현, 유성경, 2012; Duffy & Sedlacek, 2007). 진로소명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은 진로결정몰입 수준과 전공만족 수준이 높았으며, 진로소명은 삶의 만족과도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원, 이기학, 2015; Duffy, Allan, & Bott, 2012). 또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 진로결정의 관계를 진로소명이 매개하였으며(이혜민, 2017), 진로소명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몰입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박미경, 김은하, 2016; 양난미, 이은경, 2012). 이와 같이 진로소명은 진로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여러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진로소명의 긍정적인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진로소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나(김유리, 서문교, 권인수, 2016), Dobrow(2013)는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를 통해 능력(ability), 사회적 안락함(social comfort), 행동적 관여(behavioral involvement)가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경험 연구의 경우, 진로발달, 진로준비성 등 진로소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온 변인들을 바탕으로 종단 연구를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선후 관계를 제안한 바 있다(Duffy, Manuel, Borges, & Bott, 2011; Hirschi & Herrmann, 2013). 그러나 앞서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부모, 교사와 같이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타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Duffy, Dik, Douglass, England와 Velez(2018)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진로소명의 의미와 구성요소의 중요도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서양 문화권에 비해 동양 문화권은 상호의존적 자아구성개념을 가지고 있으며(Markus & Kitayama, 1991), 이러한 자아구성개념의 차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선택 과정에 있어

서도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된 진로소명의 구성 개념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서양문화권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책임감(sense of duty), 기여와 헌신’과 같은 의무적인 요인이 함께 보고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Zhang, Dik, Wei, & Zhang, 2015; 권선영, 김명소, 2014). 한편, Fouad, Kantamneni, Smothers, Chen, Fitzpatrick, & Terry(2008)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경우 가족의 기대, 가족 부양 의무, 가족의 지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로 가족이 개인의 경력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직업 선택뿐 아니라 일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동양 문화권에 속한 인도 학생들의 경우, 직업 가치, 진로소명 등 여러 직업선택과 관련된 변인들과 가족의 영향력 간의 상관관계가 미국 학생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Fouad, Kim, Ghosh, Chang, & Figueriredo, 2016). 이처럼 동양문화권에서 가족이 진로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으며, 가족 중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진로포부, 진로 발달 및 진로선택에 다각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Middleton & Loughhead, 1993; Taylor, Harris, & Taylor, 2004).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한국 대학생들은 일의 의미와 진로 결정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황매향, 조효진, 조윤진, 방지원, 2013). 이는 동양 문화권에서 진로소명이 가족과의 관계적인 측면,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영향을 받아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소명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변인으로서 부모양육태도를 독

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정은 인간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최소단위의 사회이며, 가정에서 다양한 생활양식 및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신용일, 1978; 이홍구, 1973). 이 때 부모로 대표되는 양육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유아기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기에까지 지속된다(이현숙, 조한익, 2004; Flett, Hewitt & Singer, 1995;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기르고 교육함에 있어 전반적, 보편적으로 보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정서 및 인지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물질주의 가치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윤영, 정문자, 2010; 김유연, 박성연, 2001; 이현숙, 조한익, 2004). 부모양육태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Schaefer, Bell 과 Bayley(1959)가 제시한 애정-적대와 자율-통제 수준의 두 축으로 양육태도의 개념을 바탕으로 진로소명과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차원 모두 자녀의 진로탐색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진로소명이 개인적 의미와 목표로서 설정된 경력 목표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녀 진로의 목적성, 독립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며, 다른 차원보

다 진로태도성숙 수준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남수현,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소명과 밀접하게 연관될 것으로 예측되는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를 중점으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소명 모두와 높은 상관이 있다고 밝혀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self-transcendent value)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양육태도에서 대학생 진로소명으로 연결되는 매커니즘 및 경계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양육태도이며, 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의 권위와 복종을 강조하는 권위적이고 엄격한 양육태도를 의미한다(권순명, 1993; 김종운, 강정임, 2009). 따라서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신의 가치관 및 진로 탐색에 대한 속고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진행된 경험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며, 특히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확인되었다(김희수, 2005). 또한 박완성과 김미숙(2009)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라고 인지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성숙도의 하위 차원 중 진로준비성 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율 지향적 태도는 진로결정성과 높은 상관을, 아버지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진로미결정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김기만, 2006; 김정희, 2000; 조현진, 2003).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진로소명이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강한 확신을 구성개념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Praskova et al., 2015),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이 진로소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종단연구에 따르면 직업발달, 진로확신, 진로계획과 같은 진로준비성과 진로결정성 요인은 진로소명의 선행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Dobrow, 2013; Duffy et al., 2011; Hirschi & Herrmann, 2013),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소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내적직업가치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통제적 양육 태도는 외적직업가치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7). 선혜연 등 연구자들(2007)의 구분에 따르면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음’,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 등이 내적직업가치에 해당되는 반면 ‘권력이 많음’, ‘돈을 많이 벌 수 있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음’ 등이 외적직업가치에 해당한다.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보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안정적인 경제적 보상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일의 의미 자체에 일의 의미를 찾는 속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Dik, Eldridge, Steger, & Duffy, 2012; Wrzesniewski, McCauley, Rozin, & Schwartz, 1997), 내적직업가치를 추구하는 학생의 경우 진로소명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진로소명은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통제적 양육태도와는 부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부모양육태도와 진

로소명의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Bandura (1986)의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하여 Lent, Brown, 그리고 Hackett(1994)이 제안한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진로 선택 및 발달 과정은 개인, 심리적 요인들과 사회 환경적 영향들의 상호작용으로 서로 영향을 주며 이루어진다. 이 모델에서 자아효능감과 결과에 대한 기대는 개인적, 환경적 변인에서 진로와 관련된 흥미, 목표 설정, 및 수행으로 가는 경로에서의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양육태도는 진로 탐색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진로소명은 진로 목표 및 흥미라고 볼 수 있다. 이현주(1999)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직업 선택과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 결정과 관련하여 갖는 긍정적인 기대감 및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 관여 및 지지적 태도,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전반적인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구본용, 유제민, 2010; 박완성, 김미숙, 2009; 장수현, 유성경, 2014; 하수경, 2014). 또한 자기효능감은 진로확신 및 진로성숙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반복 보고되어왔으며(강경연, 이계경, 2017),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소명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김지선, 육정원, 김이준, 김봉환, 2016; 박주현, 유성경, 2012; 이혜민, 2017; Dik, Sargent, & Steger,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소명 모두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나타내며, 부모의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진로소명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소명의 관계가 부모의 자기초월가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Schwartz(1992, 1994)에 따르면 가치는 사람들이 중시하는 바람직한 목표 상태로,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고 선택과 행동을 하는 기반이다. Schwartz(1992)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가치가 자기초월가치, 자기고양가치, 보수주의가치,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개방성가치 등의 가치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여러 문화권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 중 자기초월가치란 이기적인 관심사를 초월하여 타인과 전체 인류의 행복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가치 지향을 의미한다. Grouzet 등(2005)은 자기결정이론을 기반으로 내재적, 외재적 가치, 자기초월가치, 물질자아가치 차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Grouzet과 그의 동료들(2005)에 따르면 자기초월가치는 영적인 이해와 공동체 감정과 같은 가치 추구하고 관련되는 반면, 물질자아가치는 개인의 생존이나 쾌락 추구하고 관련된 가치들로 안전, 건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기초월가치와 관계되는 공동체적 가치와 영적 가치 추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자아존중감과 안정애착을 보이며(Park, Troisi, & Maner, 2011), 영적 가치추구는 타인 지향 가치 추구, 삶의 만족, 삶의 의미, 심리적 안녕감,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Emmons, Cheung, & Tehrani, 1998; Fiorito & Ryan, 2007; Leak, DeNeve & Greteman, 2007). 진로소명은 일에 대한 가치관을 포함하며(양난미, 이은경, 2012), 진로소명은 자기초월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Allan과 Duffy

(2014)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목표자기효능감 (career goal self-efficacy)에 의해 매개된 진로소명과 삶 만족의 관계를 자기초월가치와 물질자아가치 수준이 조절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진로소명과 자기초월가치는 강한 정적 상관, 물질자아가치와는 강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진로소명에도 부모가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송순과 신현실(2002)은 대학생 자녀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 중 하나로 부모의 물질주의 가치지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 뿐 아니라 가치지향이 자녀의 가치지향 및 행동양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이 자녀의 진로소명과 연관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이 자율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진로소명의 관계를 강화하고, 통제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 간의 관계를 약화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로소명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중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소명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며, 통제적 양육태도는 진로소명을 부적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셋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를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이 조절할 것이며, 부모가 자기초월가치를 추구할수록 자율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진로소명의 정적 관계는 강화되고, 통제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진로소명의 부적 관계는 약화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진로소명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미취업상태로 대학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참가자들은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 연구 참여에 자원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가치관 및 양육태도가 독립변인으로 연구 모델에서 핵심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모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주양육자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340명의 학생들 중 설문 응답의 미완료자 및 부모 모두 주양육자가 아니라고 응답한 52명의 학생들을 제외한 288명의 학생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참가자들 성별은 남학생이 117명(40.6%), 여학생이 171명(59.4%)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만 21.44세(SD = 2.87)였다. 참가자들의 학년 구성은 비교적 다양하였으며, 1학년이 94명으로 가장 많았고(32.7%), 4학년 이상이 89명(30.9%), 3학년이 58명(20.1%), 2학년이 47명(16.3%)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

연구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안내 받은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설문 이 시

작되기 전에 부모 또는 제 3자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부모 또는 모가 미친 영향력이 0인 경우 해당 모델의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부모 모두의 영향력이 0인 경우에는 설문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였다. 부모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주양육자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응답한 참가자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진로소명

대학생의 진로소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Praskova, Creed와 Hood(2015)가 개발하고 이후 Kim, Praskova와 Lee(2017)이 번안 및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CCS(Career Calling Scale for Emerging adults)를 사용하였다. 해당 소명척도는 타인-지향적 의미(5문항), 개인적 의미(4문항), 적극적 참여(6문항)의 세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는 4점 척도로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한 변인이기 때문에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6점 리커트 형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의 경우, Kim과 그의 동료들(201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었고,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타인-지향적 의미가 .89, 개인적 의미가 .75, 적극적 참여가 .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은 타인-지향적 의미가 .87, 개인적 의미가 .82, 적극적 참여가 .68이었다.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권순명(199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Rohner와 Rohner(1981)가 제작하고 김언주(1988)가 번안한 PARQ(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척도에서 수용-거부 차원을 측정하는 하위 검사문항들과 정원식(1970)의 가정환경진단검사에서 자율-통제 차원을 측정하는 하위 검사문항들을 근거로 하여 고안된 척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 거부, 자율, 통제에 해당하는 각 15문항으로 총 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율, 통제차원에 해당하는 질문 3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동일한 질문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신뢰도의 경우, 권순명(1993)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부의 자율적-통제적 양육차원은 .68, 모의 자율적-통제적 양육차원은 .71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는 부의 양육태도는 .82이고, 모의 양육태도는 .82이다. 하위 요인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부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62, 통제적 양육태도는 .83이고, 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55, 통제적 양육태도는 .83이다. 부모 모두에서 자율적 양육태도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타당한 이론적 근거 없이 신뢰도를 높일 목적으로 일부 문항을 삭제할 경우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Raubenheimer, 2004), 본 척도를 사용한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자율적 양육태도의 신뢰도가 .50에서 .65 수준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한 문항이나 특정 문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현숙, 조한익(2004)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부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60, 통제적 양육태도는 .78이었고, 모의 자

울적 양육태도는 .67, 통제적 양육태도는 .80이었으며,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한 양순미(2010)의 연구의 경우 부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65, 통제적 양육태도는 .77이었고, 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82, 통제적 양육태도는 .78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하고 이후 Betz와 Voyten(1997)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이은진(2001)이 변안한 단축형 척도 CDMSE-SF(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하위 항목 당 5문항 총 25문항이다. 원 척도는 10점 척도로 변안되어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도의 경우, 이은진(2001)의 연구에서는 .92였으며, 하위척도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에 대해 각각 .81, .85, .84, .74, .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1,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62, .72, .76, .76, .73였다.

지각된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가치 측정을 위해 신현희(2011)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Schwartz's Value Survey(1994)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님의 자기초월가치지향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 56개의 문항 중 자기초월가치에 해당하는 15개의 문항만을 이용하였다. 측정방식은 원척도와 동일하게 각각의 가치문항에 대해 부모님의 삶에 있어서 부

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1점(부/모의 지침과는 전혀 반대이다), 0점(중요하지 않다)에서 7점(가장 중요하다)까지, 9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여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과 같은 원리로 동일한 질문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신뢰도의 경우, 신현희(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초월가치 척도의 신뢰도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자기초월가치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부의 경우, .90, 모의 경우 .89이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5.0 프로그램과 Amo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변인들의 분포와 대략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를 산출한 후,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소명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를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모형검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이 추천한 2단계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구성개념이 측정변인에 의해 제대로 측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한 후에,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을 위한 측정변수는 문항묶음(parceling)을 사용하였다. 문항묶음을 사용할 경우, 지표변수의 공통분산이 더 커지게 되어, 공통분산과 고유분산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문항묶음을 통하여 산출된 새로운 점수는 개

별문항보다 더 연속형에 가깝고, 더 정규성을 만족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나, 어떤 종류의 문항묶음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형과 척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한다(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하위 요인이 있는 진로소명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고유분산 고립 방법을 이용하여, 각 하위요인의 평균을 계산하여 측정변수를 만들었으며, 요인구조가 없는 단일요인인 자율적, 통제적 부모양육태도는 요인부하량의 평균이 동등하게 되도록 문항을 배분하는 고유분산 분배 방법을 이용하였다. 모형검증에서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로는 CFA, RMSEA, SRMR을 고려하였다. 검증된 모형에서 매개효과와의 유의성은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였다.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고 5,000회의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Bootstrapping 결과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양육태도와 자녀 진로소명의 관계를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들의 상관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진로소명, 자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부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모의 자율적 양육태도($r = .64, p < .001$), 부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r = .77, p < .001$)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여, 부모 간 양육태도는 유사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표 1.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전체 $N = 288$, 부 응답 $N = 275$, 모 응답 $N = 285$)

	1	2	3	4	5	6	7	8
1. 부 자율적 양육태도	-							
2. 부 통제적 양육태도	-.43***	-						
3. 모 자율적 양육태도	.64***	-.39***	-					
4. 모 통제적 양육태도	-.33***	.77***	-.50***	-				
5. 자녀 진로소명	.20**	.00	.23***	.06	-			
6.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1***	-.13*	.25***	-.14*	.56***	-		
7. 부 자기초월가치지향	.46***	-.17**	.30***	-.10	.16**	.03	-	
8. 모 자기초월가치지향	.28***	-.06	.37***	-.09	.19**	.07	.78***	-
<i>M</i>	2.78	1.89	2.81	1.94	3.90	3.56	2.83	3.11
<i>SD</i>	.34	.47	.30	.47	.71	.54	1.40	1.31

* $p < .05$, ** $p < .01$, *** $p < .00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소명(부: $r = .20$, 모: $r = .23$), 진로결정자기효능감(부: $r = .21$, 모: $r = .25$)과는 유의수준 .001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소명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부: $r = .00$, 모: $r = .06$, ns),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는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부: $r = -.13$, $p < .05$, 모: $r = -.14$, $p < .05$). 부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의 경우, 부의 자율적 양육태도와는 정적인 상관($r = .46$, $p < .001$)을, 통제적 양육태도와는 부적인 상관($r = -.17$, $p < .01$) 관계를 보였다. 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의 경우, 모의 자율적 양육태도와는 정적인 상관($r = .37$, $p < .001$)을 보였으나, 통제적 양육태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r = -.09$, ns).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은 자녀의 진로소명 수준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부: $r = .16$, $p < .01$, 모: $r = .19$, $p < .01$), 진로

결정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부: $r = .03$, ns , 모: $r = .07$, ns).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진로소명 간의 관계

지각된 부모의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소명 수준을 얼마나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의 양육태도의 경우,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율적 양육태도만이 자녀의 진로소명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여, 가설이 일부 지지되었다. 다시 말해, 자녀가 부의 양육태도를 자율적으로 인지할수록 자녀의 진로소명이 높았던 반면($\beta = .25$, $p < .001$), 부의 양육태도를 통제적으로 인지하는 정도는 진로소명 수준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 ns). 한편, 모의 경우에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율적 양육태도($\beta = .35$, $p < .001$)와 통

표 2. 자녀의 진로소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부의 양육태도)

단계	변인	B	S.E.	β	t	R ²
	(상수)	2.12	.49		4.32***	
1	부_자율적 양육태도	.52	.14	.25	3.85***	.05**
	부_통제적 양육태도	.17	.10	.11	1.70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자녀의 진로소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의 양육태도)

단계	변인	B	S.E.	β	t	R ²
	(상수)	.96	.56		1.73***	
1	모_자율적 양육태도	.81	.15	.35	5.28***	.09***
	모_통제적 양육태도	.35	.10	.23	3.46***	

* $p < .05$, ** $p < .01$, *** $p < .001$

제적 양육태도($\beta = .22, p < .01$)가 모두 정적으로 진로소명을 예측하는 결과가 나타나 가설을 일부 지지하였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진로소명을 부적적으로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논의 부분에서 가능한 대안적 설명을 기술하였다.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진로소명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측정모형의 검증

구조 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표 4,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부의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녀의 진로소명을 각각의 요인으로 간주한 4 요인 모형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CFI = .94, RMSEA = .07, SRMR = .05, 모의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녀의

표 4. 측정모형의 요인값 (부의 양육태도)

측정변수	B	β	S.E.	t
진로소명				
타인-지향적 의미	1.00	.39		
적극적 참여	1.10	.57	.21	5.35***
개인적 의미	2.13	.85	.37	5.76***
부 자율적 양육태도				
부 자율적 양육태도1	1.00	.81		
부 자율적 양육태도2	.69	.59	.09	7.88***
부 자율적 양육태도3	.63	.58	.08	7.82***
부 통제적 양육태도				
부 통제적 양육태도1	1.00	.82		
부 통제적 양육태도2	.97	.83	.07	13.64***
부 통제적 양육태도3	.75	.76	.06	12.7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업정보수집	1.00	.75		
목표설정	1.17	.82	.09	13.50***
계획수립	1.25	.83	.09	13.71***
문제해결	1.00	.67	.09	10.92***
자기평가	1.15	.85	.08	14.14***

*** $p < .001$

표 5. 측정모형의 요인값 (모의 양육태도)

측정변수	B	β	S.E.	t
진로소명				
타인-지향적 의미	1.00	.37		
적극적 참여	1.16	.58	.22	5.28***
개인적 의미	2.28	.85	.40	5.66***
모 자율적 양육태도				
모 자율적 양육태도1	1.00	.78		
모 자율적 양육태도2	.56	.48	.08	6.67***
모 자율적 양육태도3	.48	.49	.07	6.73***
모 통제적 양육태도				
모 통제적 양육태도1	1.00	.82		
모 통제적 양육태도2	.99	.82	.07	13.65***
모 통제적 양육태도3	.77	.75	.06	12.6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업정보수집	1.00	.73		
목표설정	1.21	.82	.09	13.46***
계획수립	1.31	.84	.10	13.80***
문제해결	1.03	.67	.10	10.87***
자기평가	1.13	.83	.08	13.61***

*** $p < .001$

진로소명을 요인으로 하는 모델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CFI = .93, RMSEA = .08, SRMR = .05로 나타났다. C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 이상이면 모형 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다 (배병렬, 2007; 홍세희, 2000). Browne과 Cudeck(1993)에 따르면 RMSEA가 .05 이하는 매우 근사한 적합도, .05에서 .08은 괜찮은 적합도, .08에서 .10은 그다지 좋지 않은 적합도, .10 이상은 심각하게 좋지 않은 적합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Hu와 Bentler(1999)의 기준에 따라 SRMR 지수가 .08 이하이므로 본 연

구의 측정모형은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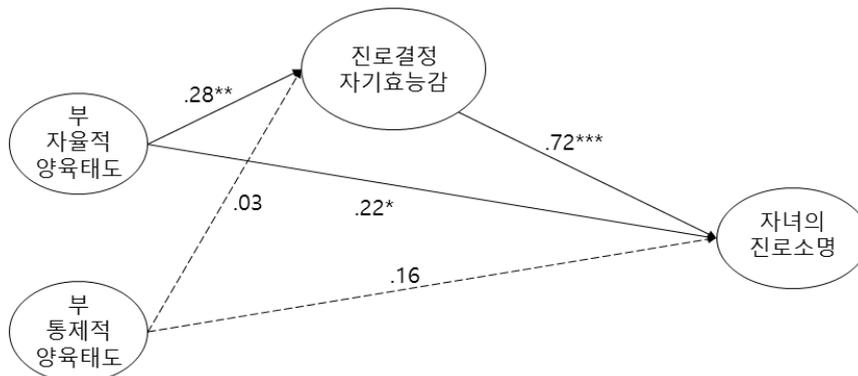
구조모형의 검정

본 연구에서 수립된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한 결과, 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우, $\chi^2 = 177.57$ ($df = 71, p < .001$), CFI = .94, RMSEA = .07, SRMR = .05였으며,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 모형의 경우, $\chi^2 = 195.03$ ($df = 71, p < .001$), CFI = .93, RMSEA = .08, SRMR = .05로 나타

났다. 구조모형 검정 결과, CFI가 .90이상, RMSEA가 .08이하, SMRMR이 .08 이하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를 살펴본 두 연구모형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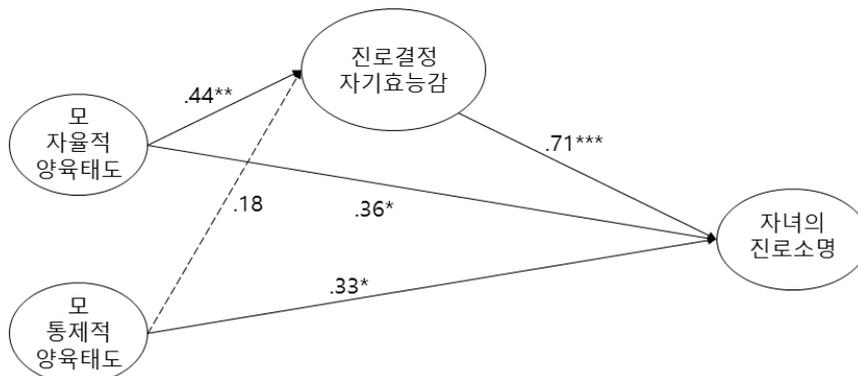
부 또는 모의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를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자녀의 진로소명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그림 1,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소명과($\beta = .22, p < .0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8, p < .01$). 반면 부의 통제적 양

육태도가 진로소명($\beta = .16, ns$)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beta = .03, ns$)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모의 경우 자율적 양육태도가 진로소명($\beta = .36, p < .05$)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beta = .44, p < .01$) 모두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에서 진로소명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정적으로 나타난 반면($\beta = .33, p < .05$), 진로결정자기효능감($\beta = .18, ns$)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과 마찬가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소명의 관계는 부모의 모델 모두에



주. * $p < .05$, ** $p < .01$, *** $p < .00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그림 1. 부 연구모형 ($N = 275$)



주. * $p < .05$, ** $p < .01$, *** $p < .00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그림 2. 모 연구모형 ($N = 285$)

서 동일하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소명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beta = .72, p < .001$, 모: $\beta = .71, p < .001$).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부모의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와 자녀 진로소명의 관계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부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경로에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였다($\beta = .23, 95\%, CI = [.07, .47]$). 반면, 부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 경로에서의 간접효과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2, 95\%, CI = [-.09, .15]$). 모의 경우, 자율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반면($\beta = .36, 95\%, CI = [.15, .74]$),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에서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11, 95\%, CI = [-.02, .32]$). 즉,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에서만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조절효과 검증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 진로소명의 관계를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이 조절한다는 가설 검증하기 위해 Fraizer, Tix와 Barron(2004)이 제안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자율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에서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수준을 투입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Fraizer와 그의 동료들(2004)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변인들을 평균중심화하였다. 2단계에서는 통제적 양육태도와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효과를 통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자율적 양육태도와 자기초월가치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의 자기초월적가치 지향은 자율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진로소명 수준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표 6. 부 양육태도와 자녀의 진로소명의 관계에서 부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B	S.E.	β	t	R ²	ΔR^2
1	부_자율적 양육태도	.44	.15	.21	2.95**	.06**	.06**
	부_통제적 양육태도	.17	.10	.11	1.65		
	부_자기초월가치지향	.04	.03	.08	1.22		
2	부_통제적 양육태도 X 부_자기초월가치지향	-.11	.07	-.10	-1.61	.07**	.01
	부_자율적 양육태도 X 부_자기초월가치지향	.35	.09	.27	3.84***	.11***	.05***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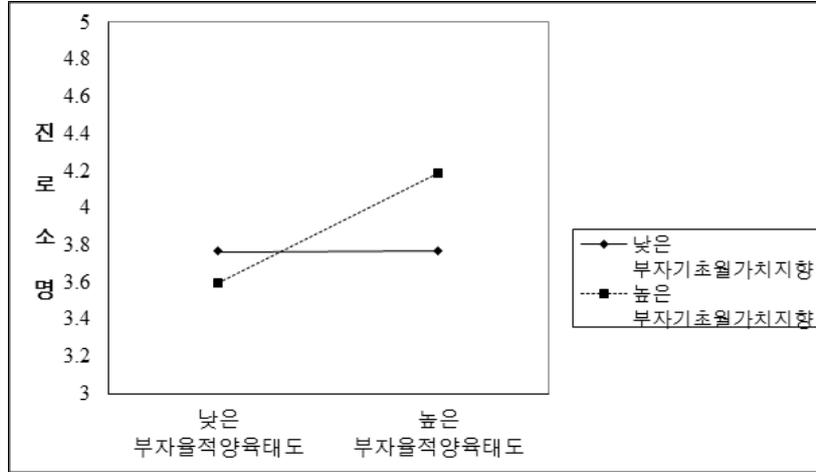


그림 3. 부 자율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 관계에서 부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조절효과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였으며($\beta = .27, p < .001$), 마지막 단계에서 투입한 상호작용항으로 인해 모델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Delta R^2 = .05, p < .001$). 즉, 부의 자기초월가치지향 수준이 높을수록 부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소명을 강하게 예측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은 표 7과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의 자율적 양육태도

와 진로소명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7, \Delta R^2 = .01, ns$). 한편, 동일한 방식으로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진로소명의 관계를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이 조절하는지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와 모의 모델 모두에서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에 의한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부: $\beta = .06, \Delta R^2 = .00, ns$, 모: $\beta = .01, \Delta R^2 = .00, ns$).

표 7. 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진로소명의 관계에서 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B	S.E.	β	t	R^2	ΔR^2
1	모_자율적 양육태도	.72	.17	.31	4.34***	.10***	.10***
	모_통제적 양육태도	.33	.10	.21	3.26**		
	모_자기초월가치지향	.05	.03	.09	1.49		
2	모_통제적 양육태도 X 모_자기초월가치지향	-.05	.06	-.05	-.84	.10***	.00
	모_자율적 양육태도 X 모_자기초월가치지향	.17	.11	.11	1.63	.11***	.0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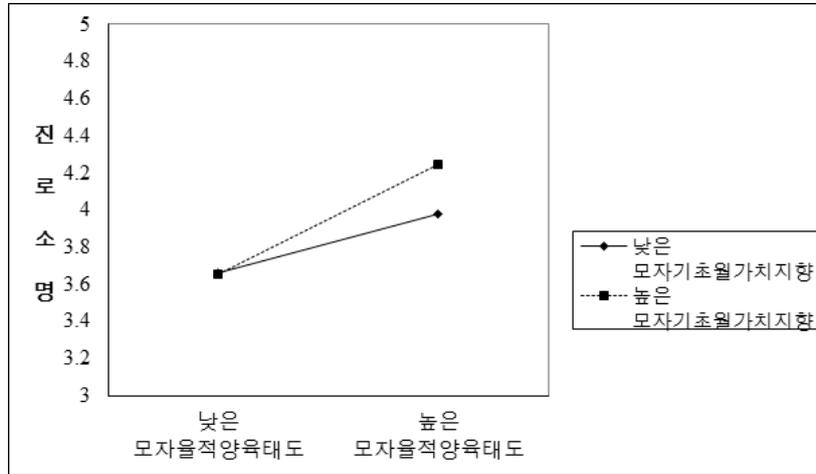


그림 4. 모 자율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 관계에서 모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조절효과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학생 자녀의 진로소명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진로소명은 자신의 일에 대해 타인지향적인 목적의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치관의 속성을 포함하기 때문에(양난미, 이은경, 2012)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이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진로소명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이 진로소명이 다른 진로 관련변인 또는 심리적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었던 것에 반해, 진로소명의 선행요인으로 부모의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를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지각된 부

와 모의 양육태도 모두 자녀의 진로소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부와 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소명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 확신,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도와 연관된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김희수, 2005; 이현숙, 조한익, 2004), 그러나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경우, 진로소명과 부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통제적 양육태도가 진로소명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특히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진로소명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진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행동으로 발현되고, 자녀에게 이른 시기에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도록 지지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종단 연구(Dobrow, 2013)와 질적연구(Hunter, Dik, & Banning, 2010)에 따르면 학생들이 특정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노출된 경험이나 행동적 관

여가 해당 분야의 진로소명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양 문화권에서 진행된 진로소명의 의미에 대한 질적연구에서 소명이 의무감과 책임감과 관계된다는 연구 결과(권선영, 김명소, 2014; Zhang et al., 2015)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일종의 행동지침과 진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소명 수준과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정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소명의 속성에 있어서 자발성이나 의무감 수준 등을 구분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소명의 속성에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부와 모 모델 모두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자율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거쳐 진로소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Lent와 그의 동료들(1994)이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강조한 자기효능감이 진로 발달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설과 다르게 부와 모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지 않았다. 이는 동양 문화권에서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관분석 결과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약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자율적 양육태도의 효과크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Ivengar와 Lepper(1999)는 서양 문화권에서 자율적 양육태도의 긍정적 효과가 강조되는 것에 반해, 동양 문화권에서는 통제적 양육태도가 야기하는 결과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Sovet과 Metz(2014)가 진행한 비교문화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 청소년들은 프랑스의 청소년들과 달리 오히려 부모의 엄격하고 통제적인 행동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 통제적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통제적 양육태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소명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이 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였다. 부모의 가치관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며(Hitlin, 2006), 부모의 일에 대한 가치관은 자녀의 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Cemalcilar, Secinti, & Sumer, 2018).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가치지향이 자녀가 자신의 진로를 소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 의해 지각된 부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상호작용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지각된 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일부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가 부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율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진로소명의 정적 관계가 강화되었다. 반

면, 모의 경우에는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수준에 따라 자율적 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소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양육태도 뿐 아니라, 부모의 가치지향 역시 주요한 역할을 하며, 부와 모가 자녀의 진로소명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어머니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의 경우 자율적 및 통제적 양육태도 자체가 진로소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치지향의 추가적인 상호작용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관관계에 있어서 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은 모의 지각된 자율적 양육태도와 정적상관을 갖지만, 지각된 통제적 양육태도와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부의 경우 모보다 지각된 자율적 양육태도와 자기초월가치지향은 더 강한 정적 상관을, 부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가치지향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의 경우, 자율적 및 통제적 양육태도의 분리가 더 강하게 인식되고, 양육태도와 자기초월가치지향과의 관계가 더 명확하게 자녀에게 지각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부가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일지라도 자기초월가치지향 수준에 따라서 진로소명에 미치는 영향력이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서 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과 자녀의 소명의식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도 자녀의 진로소명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와 모의 영향력을 독립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

에, 부와 모가 실제로 서로 다른 경로로 자녀의 진로소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가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장면에서 가지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소명은 진로결정성,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전공만족, 일의 의미, 삶 만족 등을 예측하는 것으로 연구되어왔다. 진로결정성이 낮거나 진로 탐색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에 대해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치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적으로 인지하지 않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떨어질 경우, 자신의 향후 진로가 가지는 개인적인 의미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진로 탐색 및 준비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장면에서 대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향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소명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성숙도와 구분되어, 타인지향적인 가치를 지니는 경력 목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의 자기초월적 가치지향이 자녀의 진로소명과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물질주의가치관이 자녀의 물질주의가치관과 연관된다는 선행연구(김유연, 박성연, 2001)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자녀의 가치관의 동질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으나(Barni, Alficri, Marta, & Rosnati, 2013; Barni, Knafo, Ben-Arieh, & Haj-Yahia, 2014),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부모의 가치지향이 자녀의 직업적 가치지향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진로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자녀의 직업관이나 진로에 대한 가치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정환경 및 부모의 가치관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제한점이 존재하며,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해당 결과가 한국 문화권에만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녀의 진로소명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한국 참여자들에서만 나타나는 것인지 동양 문화권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서양 문화권을 대상으로 부모의 영향과 자녀의 진로소명의 관계를 확인하는 추가 연구를 통해 동양 문화권의 진로소명이 가지는 차별점을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 외에도 진로소명의 개념 및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성에 있어서 집단주의 문화권과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가 횡단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진로소명의 선행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이를 위해 부모양육태도라는 변인을 설정하였으나, 해당 연구가 횡단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진로소명과 밀접한 연관성이 선행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밝혀져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횡단연구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들에 따라 인과관계가 혼용되어

설정되어있다(김지선 등, 2016; 박주현, 유성경, 2012; 신윤정, 2013; 이혜민, 2017). 따라서 본 연구 모델의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종단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자녀가 보고한 것을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보다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행동 및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aefer, 1965). 이를 근거로 자녀의 진로 관련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실제 양육행동보다 자녀의 지각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소명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진로소명 수준이 역으로 부모양육태도의 지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의 검사지가 부모-자녀 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양식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자녀의 진로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자율적이거나 통계적인 태도를 보였는지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자녀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을 함께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초월가치지향이 직접적으로 자녀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진로소명을 갖도록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가치지향을 측정하여 부모의 가치지향이 어떤 경로를 통해 진로소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심도 있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진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소명의 선행요인을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맥락적 변인인 부모양육태도와 관계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녀의 진로 및 직업 선택이 온전한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가족 구성원의 기대 및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관련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환경, 맥락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와 부모의 자기초월가치 변인만을 살펴보았지만,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부모의 기대수준 및 자녀의 경제적 자립도 등 부모와 자녀의 진로소명에 대한 관계를 보다 다각도로 탐구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강경연, 이제경 (2017).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관련 변인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1), 41-67.
- 곽윤영, 정문자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21-141.
- 권선영, 김명소 (2014). 직업소명의 구성개념과 소명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6), 393-420.
- 권순명 (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전주.
- 구본용, 유제민 (2010).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1), 171-187.
- 곽윤영, 정문자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21-141.
- 김기만 (200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김영석, 이상희 (2016). 대학생의 소명,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3(4), 673-689.
- 김유리, 서문교, 권인수 (2016). 소명의식의 선행요인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4(4), 75-98.
- 김유연, 박성연 (2001). 부모 양육태도 및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13.
- 김은영 (2007). 남녀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79-1100.
- 김인주 (1988). 인지-정의 인과론에 관한 귀인론적 접근. *교육연구논총*, 9(1), 73-100.
- 김정희 (200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 김중윤, 강정임 (2009).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2

- (3), 121-135.
- 김지선, 육정원, 김이준, 김봉환 (2016). 대학생의 소명과 학과만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1), 249-264.
- 김희수 (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 남수현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미경, 김은하 (2016). 대학생의 진로소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1), 207-225.
- 박완성, 김미숙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수도권 3 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2(4), 85-108.
- 박주현, 유성경 (2012).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2), 543-560.
- 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7). 진로상담: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 *상담학연구*, 8(2), 549-563.
- 송순, 신현실 (2002). 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3), 223-235.
- 신용일 (1978). *교육심리학*. 서울 : 동문사.
- 신윤정 (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209-226.
- 신지민, 이은경, 양난미 (2015).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4(1), 169-194.
- 신현희 (2011). 자기초월가치와 환경보존행동 및 친환경행동의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신혜진 (2016).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진로동기의 영향력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2), 349-373.
- 안태용, 김신예 (2013).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 준비행동, 진로만족 및 삶의 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시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2(6), 21-42.
- 양난미, 이은경 (2012).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51-68.
- 연문희, 강진령 (2002). *학교상담*. 서울: 양서원.
- 오현숙 (2008). 대학생이 지각하는 취업전망, 영역별 삶의 목표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19-37.
- 이기학, 한종철 (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67-189.
-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3), 1461-1479.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이지원, 이기학 (2015).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 삶의 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53-976.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이혜민 (2017).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 기호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인과적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이현숙, 조한익 (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89-105.
- 이현주 (1999).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연구, 37(2), 235-257.
- 이흥구 (1973). 학교와 지역사회. 서울 : 재동문화사.
- 장수현, 유성경 (2014). 대학교 4학년의 구직행동과 일의 목적/의미 및 부모지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1), 1-17.
- 정원식 (1970). 가정환경진단검사 요강. 서울 : 코리안 테스트 센터.
- 조현진 (200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구.
- 하수경 (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6), 339-368.
- 황매향, 조효진, 조운진, 방지원 (2013). 대학생의 일의 의미와 진로 결정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675-699.
- Allan, B. A., & Duffy, R. D. (2014). Calling, goals, and life satisfactio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2(3), 451-464.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ni, D., Alfieri, S., Marta, E., & Rosnati, R. (2013). Overall and unique similarities between parents' values and adolescent or emerging adult children's values. *Journal of Adolescence*, 36(6), 1135-1141.
- Barni, D., Knafo, A., Ben-Arieh, A., & Haj-Yahia, M. M. (2014). Parent - child value similarity across and within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6), 853-867.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 : Russel Sage Foundation.
- Betz, N. E., & Vu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Cemalcilar, Z., Secinti, E., & Sumer, N. (2018).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ork value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7(8), 1559-1579
- Dik, B. J., Eldridge, B. M., Steger, M. F., & Duffy, R. D.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and brief calling scale (BC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3),

- 242-263.
- Dik, B. J., Sargent, A. M., & Steger, M. F. (2008). Career development strivings: Assessing goals and motivation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plann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5*(1), 23-41.
- Dobrow, S. R. (2013). Dynamics of calling: A longitudinal study of musicia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4*(4), 431-452.
- Douglass, R. P., & Duffy, R. D. (2015). Calling and career adaptabili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6*, 58-65.
- Duffy, R. D., Allan, B. A., & Bott, E. M. (2012).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vestigating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3), 469-479.
- Duffy, R. D., Dik, B. J., Douglass, R. P., England, J. W., & Velez, B. L. (2018). Work as a calling: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5*(4), 423.
- Duffy, R. D., Manuel, R. S., Borges, N. J., & Bott, E. M. (2011). Calling, vocational development, and well being: A longitudinal study of medica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2), 361-366.
- Duffy, R. D., & Sedlacek, W. E. (2007).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a calling: Connection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3), 590-601.
- Emmons, R. A., Cheung, C., & Tehrani, K. (1998). Assessing spirituality through personal goals: Implications for research on religion and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45*(1-3), 391 - 422.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Y: Norton.
- Fiorito, B., & Ryan, K. (2007). Spiritua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mediator-moderator study.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8*(4), 341 - 368.
- Flett, G. L., Hewitt, P. L., & Singer, A. (1995). Perfectionism and parental authority styles. *Individual Psychology: Journal of Adlerian Theory, Research & Practice, 51*(1), 50-60
- Fouad, N. A., Kantamneni, N., Smothers, M. K., Chen, Y. L., Fitzpatrick, M., & Terry, S. (2008). Asian american career development: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2*(1), 43-59.
- Fouad, N. A., Kim, S. Y., Ghosh, A., Chang, W. H., & Figueiredo, C. (2016). Family influence on career decision making: Validation i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1), 197-212.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134.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Grouzet, F. M., Kasser, T., Ahuvia, A., Dols, J. M. F., Kim, Y., Lau, S., ... & Sheldon, K. M. (2005). The structure of goal contents across 15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5), 800-816.
- Hirschi, A., & Herrmann, A. (2013). Calling and career preparation: Investigating developmental

- patterns and temporal preced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1), 51-60.
- Hitlin, S. (2006). Parental influences on children's values and aspirations: Bridging two theories of social class and socializat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49(1), 25-46.
- Hunter, I., Dik, B. J., & Banning, J. H. (2010).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lling in work and life: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2), 178-186.
- Iyengar, S. S., & Lepper, M. R. (1999). Rethinking the value of choice: A cultural perspective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3), 349-366.
- Kim, H. J., Praskova, A., & Lee, K. H. (2017). Cross-cultural validation of the career calling scale for Korean emerging adul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5(3), 434-449.
- Leak, G. K., DeNeve, K. M., & Greteman, A. J.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assessed through self-transcendent goal strivings, and positive psychological attributes.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8, 263 - 279.
- Lent, R. W., & Brown, S. D.(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iddleton, E. B., & Loughhead, T. A. (1993). Parental influence on career development: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adolescent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9(3), 161-173.
- Park, L. E., Troisi, J. D., & Maner, J. K. (2011). Egoistic versus altruistic concerns in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8(3), 315-335.
- Praskova, A., Creed, P. A., & Hood, M. (2015).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career calling scale for emerging adul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1), 91-106.
- Raubenheimer, J. (2004). An item selection procedure to maximize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SA Journal of Industrial Psychology*, 30(4), 59-64.
- Rohner, R. P., & Rohner, E. C. (1981).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cultural codes. *Ethnology*, 20(3), 245-260.
- Schaefer, E. S., Bell, R. Q., & Bayley, N.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1), 83-104.
- Schaefer, E. 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6), 552-557.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4), 19-4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ovet, L., & Metz, A. J. (2014). Parenting styles and career decision-making among French and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4(3), 345-355.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aylor, J., Harris, M.B., & Taylor, S. (2004). Parents have their say about their college-age children's career decisions.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Employers Journal*, 64(2), 15 - 20
-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Wrzesniewski, A., McCauley, C., Rozin, P., & Schwartz, B. (1997). Jobs, careers, and callings: People's relations to their wor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1), 21-33.
- Xu, H., & Tracey, T. J. (2015). Ambiguity tolerance with career indecision: An examination of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4), 519-532.
- Zhang, C., Dik, B. J., Wei, J., & Zhang, J. (2015). Work as a calling in China: A qualitative study of Chi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2), 236-249.
- 원 고 접 수 일 : 2018. 09. 04.
수정원고접수일 : 2018. 12. 10.
최종게재결정일 : 2018. 12. 1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nd
Career Call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Moderation Effect of Parents' Self-transcendent Value Orientation**

Sohee Kim

Jiyoung Park

Young Woo Soh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career call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Specifically, the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arents' autonomous and controlling child-rearing attitudes on college student's career calling, and a mediating role of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s. This study also tested the moderation effect of parents' self-transcendent value orient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aring attitudes and children's career calling. A total of 288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rough an online survey. First, father and mother's autonomous parenting attitude was both found to affect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calling positively. Contrary to our hypothesis, father's control parenting attitude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career calling and mother's control parenting attitude was positively related to career calling in our hypothesized model. Second, th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ous parenting attitude and career calling. Third, father's self-transcendent value orientat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ous parenting and career calling, but mother's self-transcendent value orientation did not moderate.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transcendent value orientation was not fou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parenting and career calling.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several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Career calling, Child-rearing attitud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transcendent value